

## 투병 동료가족 돕기 따뜻한 기부展

3~9일 무등·원갤러리 '사랑으로...'전

지역작가 43명 앞다퉈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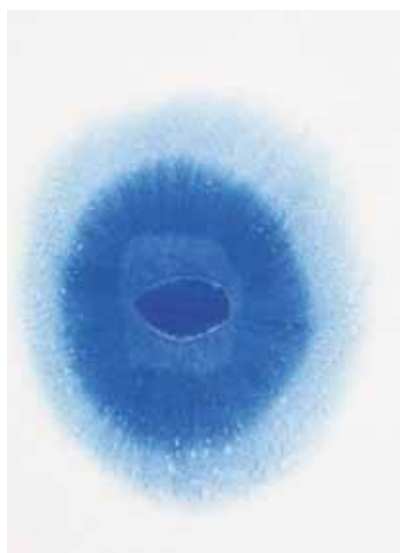
저렴한 가격에 작품 소장 기회

갤러리 무료 대관, 도록업체 협찬

지역 예술가들은 대부분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가들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가족의 힘이 크다. 가장 작품을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들이 있기에 애환 광주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한희원 작 '생의 꽃'



강운 작 '물위를 굶다'



조대원 작 '행복한 사유'

최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역 작가들이 병에 걸린 동료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다.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무등갤러리와 원갤러리에서 '2016 사랑으로...' 전시가 열린다.

올 여름 지역 미술계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독특한 화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 중견 작가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지역 작가들은 돕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조심히 이야기만 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9월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이남 작가가 사랑의 성금모금전을 열자고 의견을 냈다. 뜻이 모아져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년 중 가장 전시가 많이 열리는 시기이지만 예술의 거리에 있는 무등갤러리와 원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다. 전시 의도에 공감한 두 갤러리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이남 작가는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작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전시니까 기부전을 열자고 이야기를 꺼냈다”며 “다행히 갤러리 쪽에서도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아트가이드”를 발행하고 있는 서동한 푸른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도록을 지원했다.

작가프로필과 작품을 꼼꼼하게 실으

며 신경써서 제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표지에는 도우려는 작가 작품을 실으며 힘을 보태고 있다.

처음에는 한희원, 강운, 이이남 등 몇몇 작가들만 참여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화우(畫友)들이 너도 나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참여 인원은 43명까지 늘어났다. 청년부터 중견 작가까지 세대, 소속, 출신 학교를 다 떠나 한마음으로 뭉쳤다.

작품은 약 20점씩 나눠 두곳에 배치된다. 회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가 출품된다. 참여작가들은 기존보다 저렴하게 작품을 내놓아 부담없는 가격에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해 어느 전시 못지 않은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운 작가는 “처음엔 가까운 지인들만 참여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줘 광주가 괜히 예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마음을 알아줘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희원 작가는 “광주는 예향이라고 불리지만 대다수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조하고 있는 가족들도 힘든 상황이다”며 “이번 전시는 어느 개인이 아닌 전체 작가들의 일이다. 작가들이 혼자 아니라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무등갤러리 062-236-2520, 원갤러리 062-222-654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이인성 작가

우수상 양정렬·신진작가상 박세희씨...수상작 8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전시

제18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상금 1000만원)에 이인성(35·회화·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우수상(300만원)에는 양정렬(39·회화), 신진작가상(200만원)에는 박세희(32·영상) 작가가 뽑혔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난 26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포트폴리오·작품 심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3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미술제 심사는 정주영 한예중 교수, 반이정 미술평론가, 김옥렬 아트스페이스펠 대표가 맡았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개인 심리와 실제 사건을 화면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어느 오프닝”, “아버지의 목발” 등에서 “독창적인 화풍, 해석의 단서를 던지는 화면 위 주황색 점에서 회화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했다”는 의견이다.

양씨는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교를 수료했다. 공간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공상 영화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영



‘어느 오프닝’

상을 회화로 재현했다는 평을 들은 ‘Self-Reflective Choice’를 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캠버웰컬리지에서 순수미술, 사진을 전공한 박씨는 풍경을 매개로 사진에서 비디오 작업으로 확장하는 순간이 인상 깊었다고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영상 작품 ‘Vanished landscape’를 출품했다.

올해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개인 초대전이 제공된다. 시상식은 2일 오후 5시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신세계갤러리는 수상자 3명을 비롯해 김도경, 김정민, 양나희, 유아영, 이보영, 조현택 등 1차 선정작가 대표작을 8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옷·염색·한지...

### 담양공예명인 7명

### 공예품 첫 ‘한자리’

### 7일까지 담빛창고 특별전

담양군에는 죽공예 이외에도 옷질, 가구, 한지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공예인들이 땀을 쏟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공예명인을 선정해 올해까지 명인 7명이 활동하고 있다. 담양 공예명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전시한다.

담양 담빛창고에서 담양공예명인특별전이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옷공예, 도자기, 염색, 침선(針線), 악기, 한지 등 명인 7명이 참여해 35점을 선보인다.

가구를 제작하는 최상원 명인은 ‘용목 나비사충장 머리장 세트’를 공개한다. 복을 가져다 주는 나비 모양 손잡이와 경첩으로 화사함을 더했다. 김명희 명인은 천연염색을 선보인다. 대나무잎으로 물들



최상원 명인 작  
‘용목나비사충장 머리장 세트’

인 ‘옥사발’, 파란 ‘단령포’, 붉은 ‘방령포’ 등 색의 향연은 선사한다.

남태운 명인은 ‘죽순형 다기’, ‘분청당 병병’ 등을 통해 현대적 감각을 자기에 심었다. 또 허무 명인은 ‘정약가야름’ 등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소개하고 김금주 명인은 ‘흑색단령’ 등 왕실 복장을 재현했다. 그밖에 김미선 명인은 종이를 천연

염색으로 물들인 병 ‘어울림’을, 김진용 명인은 실용성이 돋보이는 ‘중합다완장’을 전시한다.

지난 2015년 협동조합(이사장 최상원)을 설립한 공예명인들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매년 정기전을 열어 담양 공예를 알릴 계획이다. 문의 061-380-348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기농작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나도 시민예술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예술 퍼져간다  
삶의 활기 충전, 예술 생태계 완성

